

총선 결과로 대선 보인다... 잠룡들 '희비'

이낙연·황교안 '종로 미니대선' 승패 따라 대권 갈림길 출마 안 한 임종석·유승민도 주목... 이재명·박원순 관심

4·15 총선의 날이 밝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잠룡들의 정치적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총선 이후 2022년 대권 경쟁의 불씨가 지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승리를 거머쥔 잠룡은 대권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패배의 고배를 마신 차기주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두 잠룡은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다.

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 1·2위를 다투는 만큼 이번 총선선거는 '미니 대선'을 방불

케 한다.

일단 여론조사 공표금지일 직전까지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와 각 당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이 후보가 황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여세를 몰아 총선 당일 승리를 거머쥔다면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고향 전남에서만 4선을 하고 전남 지사를 지낸 데서 비롯된 '지역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물론 패배할 경우 대선 행보에 급제동이 걸리면 서 당장 여권 내 다른 잠룡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반대로 황 후보가 이 후보를 꺾는

다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우뚝 서게 된다. 미래통합당의 '협치'인 종로에 출마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열세를 극복하고 여권의 가장 강력한 잠룡 중 하나를 꺾는 '역전 드라마'를 쓰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할 경우 통합당의 전체 총선 승패 성적에 따라 당 대표직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총선에 불출마했지만, 지원 유세로 존재감을 크게 보여준 잠룡들도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중점 지원한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따라 이들도 제평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를 이끈 임 전 실장은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고민정(서울 광진을)·박수현(충

남 공주·부여·청양)·윤영찬(경기 성남 중원) 후보 등의 선거운동을 발 벗고 지원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혔다.

유 의원의 향후 행보는 이해훈(서울 동대문을)·하태경(부산 해운대갑)·오신환(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을)·지상욱(서울 중구·성동을)·이준석(서울 노원병) 후보 등 '유승민계'와 수도권 후보들의 성적표에 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각각 경기도와 서울시의 대응책을 연일 발표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도 경쟁 뛰어들었다.

특히 이 지사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일부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이낙연 후보,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함께 상위권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선거 후보 조형물 사이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당선인 윤곽 16일 오전 2시 예상

비례대표 투표 결과는 8시쯤 수작업 분류로 시간 오래걸릴

여야 정당들의 4·15 총선 지역구 성적표가 투표일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쯤, 비례대표 의석은 오전 8시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 2만7700개를 전국 251개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시작한다.

각 지역구의 첫 투표함 개표 결과는 오후 8시쯤 공개되기 시작한다.

지역구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날 오전 2시쯤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이후에도 개표가 진행되는 만

큼 접전지의 경우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 지역구 개표가 16일 오전 4시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정당투표의 경우 더 늦어져 일러 야 16일 오전 8시쯤 개표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는 무려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바람에 정당 투표용지 길이(48.1cm)가 투표지 분류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길이인 34.9cm를 초과해서 개표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의석수를 산정해 배분하며 이후 16일 오후 5시 예정된 중앙선관위 위원회의에서 당선인을 확정한다. 연합뉴스

투표율, 16년 만에 60% 벽 뚫을 수 있을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26.69% 전문가 "60% 넘어 70%도 가능"

높은 투표율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징표로 여겨지지만 2000년대 들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등을 통해 뜨거운 열기가 확인되면서 투표율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은 1948년 제헌국회의 95.5%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6대(1963년) 총선 72.1%로 떨어졌다.

투표율은 11대(1981년) 총선까지 70%대에 머물다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킨 12대(1985년) 총선 때 84.6%로 치솟았다.

이후 총선 투표율은 13대 75.8%, 14대 71.9%,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로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역대 최저인 46.1%로 떨어졌다.

19대 총선 54.2%, 가장 최근인 2016년 20대 총선 58.0%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을 보면 이런 하락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이래 역대 최고치

인 26.69%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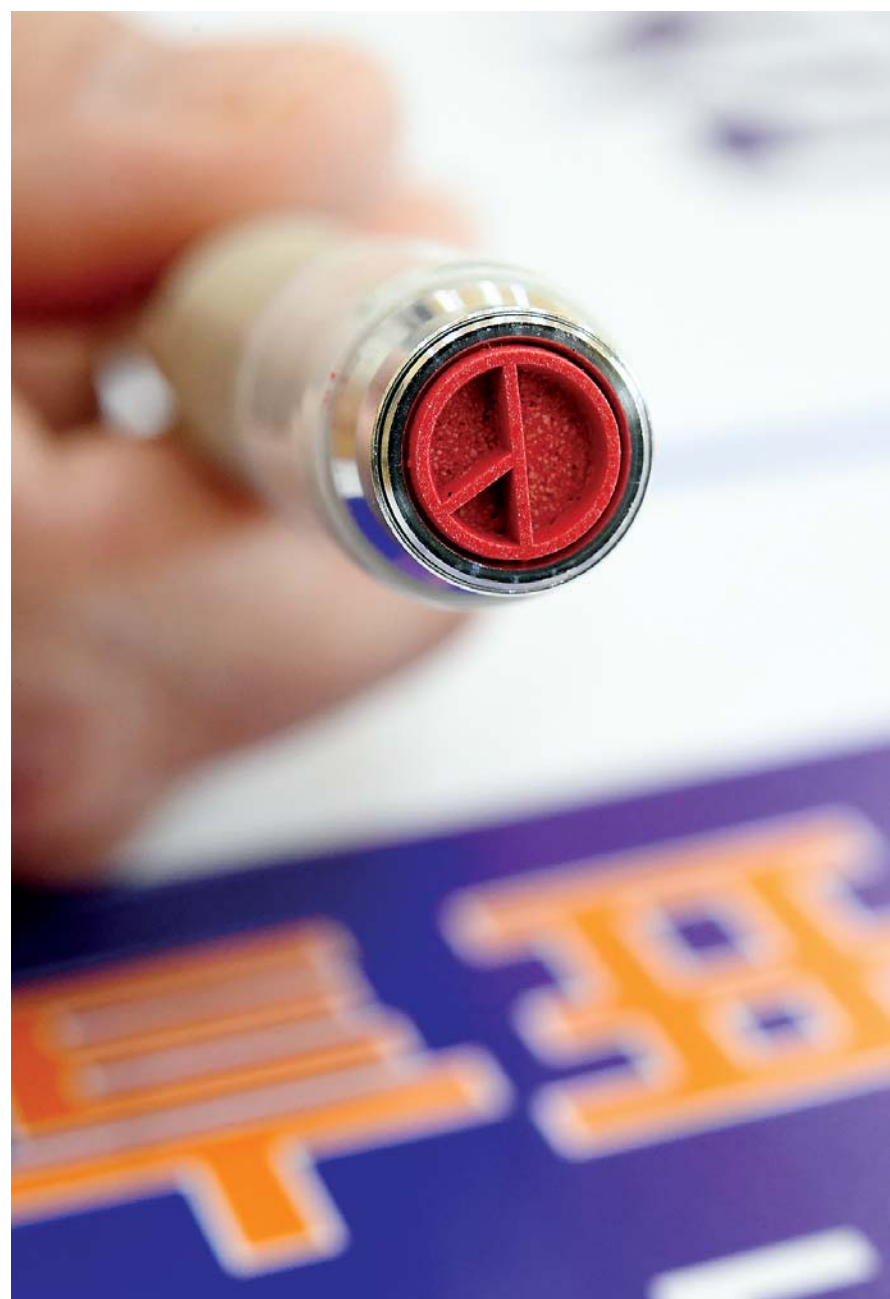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12.19%)보다 14.50%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우려에 따른 투표일 '분산'을 고려해도 높다는 평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궐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이번 선거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유권자는 94.1%였다. 지난 총선 당시 조사(88.8%)보다 5.3%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유권자가 많아 투표율이 60%를 넘어 70%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국민은 국가의 중대한 시기에 국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투표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투표율이 60% 후반에서 70% 초반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가 아니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대거 투표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소중한 한 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운초등학교 2층 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표용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선거일 전국에 '갑호 비상' 발령

투개표 현장 7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15일 돌발상황에 대비해 전국에 최상위 비상령인 갑(甲)호 비상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 비상은 갑(甲)-을(乙)-병(丙)호-경계 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로, 중요 선거나 국제행사, 국빈 방문 등이 있을 때 내려진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모든 경찰관의 연차휴가는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의 100%를 동원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투표가 시작하는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총 7만138명의 경찰력을 동원한다.

투표소 1만4330곳에 2만8660명, 투표함 회송 1만4580곳에 2만9160명, 개표소 251곳에 1만2318명을 투

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표소 안팎 질서 유지, 소란행위 제지는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며 "경찰은 선관위의 요청을 받으면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소에서 폭력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곧바로 개입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투표함을 옮기는 작업에는 노선별로 무장 경찰관 2명이 배치된다.

관할 경찰서장은 직접 개표소 현장을 챙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주택용 태양광 50% 무상지원 선착순 모집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2020 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호

사업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 :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

지원범위 : 세대당 3kW

보조금 : 공사비의 50%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